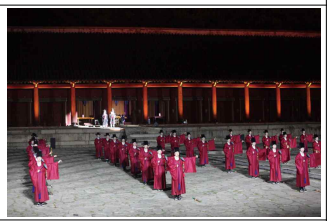
(붙임 3)

주요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사진	설명
개막제 <2019 오늘, 궁을 만나다>		**경회루/ 4. 26. (금) 19:30** 제5회 궁중문화축전을 여는 개막행사로, 축전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프로그램 들을 옴니버스 식으로 선보임
경회루 판타지 <화룡지몽>		**경회루 / 4. 28. (일) - 5. 4. (토) 20:00 - 21:00** 박자청이 경회루를 건설하는 과정을 환상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3D 맵핑, 활용한 조명 연출, 화려한 춤과 연기를 더한 종합 예술
광화문 新 산대놀이		**광화문광장 / 4. 28. (일) 15:00 - 17:00** 왕과 신하, 백성을 대표하는 거대한 인형들과 그 뒤를 따르는 시민들의 가면 행렬, 그리고 모두가 손을 잡고 어우러지는 대동놀이
고궁사진전 <꽃피는 궁궐의추억>		**경복궁 흥례문 광장 / 4. 30. (월) - 5. 5. (토) 11:00, 15:00** 궁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사진, 고궁을 배경으로 관객들의 사진을 전시해 주는 특별한 공간
조선왕조 500년의 <예악(禮樂)>		**인정전/ 5. 2. (목) - 5. 4. (토) 15:00 - 16:00** 과거 궁중예술을 실제 궁궐을 배경으로 감상하면서 왕실의 위엄과 함께 자연과 건축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공연
달빛기행 in 축전		**창덕궁 일대 / 5. 2. (목) - 5. 4. (토) 19:00-21:00 / 20:00-22:00** 우리나라 궁궐 중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그 공간적 가치와 역사적, 문화적 이야기 들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듣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AR 체험 - 창덕궁의 보물		**창덕궁 일대	4. 27. (토) - 5. 5. (일) 09:00 - 18:00** 창덕궁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고, 증강현실 속 왕과 왕비와의 기념사진을 보여줌

프로그램명	사진	설명
웃는 봄날의 연희 <소춘대유희 (笑春臺遊戱)>		**광명문 앞 협률사 / 4. 27. (토) - 5. 5. (일) 13:00-14:00 / 19:00-20:00** 대한민국 최초의 실내 공연장으로 전통연희를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공연장을 제현하기 위해 덕수궁 내 협률사 만들어 명인명창들의 무대를 준비했다.
시간여행 그날, <영조, 백성을 만나다>		**창경궁 일대 / 5. 3. (금) - 5. 5. (일) 15:00 - 16:00** 창경궁의 여러 전각들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참여해 전문 배우들과 함께 영조의 다양한 업적을 재연하는 체험극
창경궁 양로연 <가무별감>		**문정전 | 4. 29. (월) - 5. 1. (수) 13:00 - 15:00** 창경궁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창경궁 문정전에서 공연과 다과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어린이 씨름한마당 궁궐 도깨비와 씨름 한 판		**잔디광장 씨름장 / 5. 4. (토) - 5. 5. (일) 11:00-17:00** <어린이 씨름대회>에서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이 대한씨름협회의 공정한 경기운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씨름의 가치와 재미를 공유
덩더쿵 로봇한마당		**숭정문 앞 특설무대 / 5. 4. (토) - 5. 5. (일) 10:30 /17:00** 최첨단 로봇기술과 전통공연예술이 결합된 융합형 콘텐츠로,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과학적 호기심을 키워주는 이색적인 로봇공연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		**정관헌 | 4. 27. (토) - 5. 5. (일) 14:30 - 16:30** 고종황제가 외국 공사들을 접견한 후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전문배우들이 재현하며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독특한 황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조선 마술사 마술 공연		**숭정문 앞 특설무대 | 5. 4. (토) - 5. 5. (일) 13:30-14:00** 한국의 탈과 광대놀이, 한국무용을 더한 한 마술과 현대마술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한 마술
종묘제례악 야간공연		**정전 / 4. 30. (화) - 5. 3. (금) 20:00 - 21:00** 종묘대제 때 연주되는 궁중음악 '종묘제례악'의 야간공연
종묘대제		**영녕전, 정전 | 5. 5. (일) 10:00 - 16:00** 종묘대제는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제례와 음악과 춤이 함께 거행되는 의식

□ 10개의 테마로 즐기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

① 단 한번뿐인 화려한 볼거리! 개막식과 <광화문 신산대놀이>
② 조선 궁궐과 21세기 첨단기술의 만남
③ '조선식 달밤'이 궁금하시오?
④ 어르신에게 왕의 건강 검진과 즐거운 잔치를 챙겨드리자!
⑤ 축제 속 축제. 조선 상남자들의 무예와 스포츠를 즐기다!
⑥ 개혁의 왕 '고종'이냐, 백성을 아낀 위민의 왕 '영조'냐
⑦ 봄빛 물든 공연, 봄날의 궁중을 수놓다
⑧ 우리 아이들에게 왕의 품위와 지혜를 물려주는 시간
⑨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만나는 곳, 종묘
⑩ 우리가 모르고 있던 궁궐의 비밀. 그림으로 보고, 라디오로 듣는다

① 단 한번뿐인 화려한 볼거리! 개막식과 <광화문 新 산대놀이>

- **개막제(4월 26일, 오후 7시 30분)**가 펼쳐지는 경복궁 내 경회루는 북악산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삼아 그 아름다움을 뽐내며 연못 위에 우뚝 서 있는 명물로 각종 달력과 문화재 책자에 단골로 등장하는 건물이다.
- 단 한번 뿐인 개막제는 식전 행사인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 개회선언 및 축사, 하이라이트 공연인 <경회루 판타지-화룡지몽(花龍之夢)>이 펼쳐진다.
- 식전행사 중 '첩종'이란, 임금이 불시에 궁궐의 군사들을 소집시킬 때 울린 큰 종을 뜻한다. 첩종은 군의 군율과 군기를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의 대표적인 무예제도로, 종이 울리면 궁궐에 위치한 군사뿐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의 병사들까지 집합하여 사열의식을 진행했으며, 군사들은 빠르고 절도 있는 무예를 보여주고 겨루기를 통해 조선왕조의 권위를 드높였다.
- 개막제의 밤이 짙어지면 경회루에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한 조명과 빛이 건축물과 호수를 환상적으로 비추며 **<경회루 판타지-화룡지몽(花龍之夢)>**이 펼쳐진다.
-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펼쳐지는 **<광화문 新 산대놀이>**(4월 28일 1~5시)도 단 한번 밖에 만날 수 없는 장대한 야외 공연이다. 세종대로(세종로)는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건설할 때 뚫은 대로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중심도로이다.

- 조선 시대에 세종대로는 왕이 출정할 때 어가행렬이 진행되었던 중요 장소였으며, 어가행렬은 궁 안에서 생활하던 임금이 거리에서 백성들과 만나는 '무대'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존재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었다.
- 과거에 '왕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 '시민이 걷는 길'이 되었다. 왕과 백성의 상생과 조화의 철학과 정신을 잇는 **<광화문 新 산대놀이>**는 줄타기, 진도북놀이, 풍물패, 가배놀이 등으로 세종로를 가득 채우는 긴 행렬(퍼레이드)을 만들어 '너'와 '나'가 만나 '우리'를 만드는 공존과 화합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 개막제에서 선보인 <사열의식 첩종>과 <경회루 판타지-화룡지몽(花龍之夢)>은 개막제 이후에도 진행된다.

② 조선 궁궐과 21세 첨단기술의 만남

- 경복궁 경회루에서 열리는 실경미디어 퍼포먼스 <경회루 판타지-화룡지몽(花龍之夢)>, 창덕궁의 AR체험은 '조선 궁궐과 21세기 첨단기술의 만남'이다.
- 오후 8시, 밤이 깊어지는 봄날에 펼쳐지는 **<경회루 판타지-화룡지몽(花龍之夢)>**은 경회루의 빼어난 건축미와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곳곳에 놓인 벽사(辟邪)의 상징들이 품고 있는 이상향을 화려한 첨단 조명기술을 통해 아름답고 신비한 판타지로 그려내는 미디어 퍼포먼스로, 경회루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이루고 있는 하늘과 호수에도 투영되어 환상적인 환경을 연출해낼 예정이다. 더불어 공중을 나는 플라잉퍼포먼스, 호수의 환상적인 배경을 응용한 수상 퍼포먼스, 빛을 이용한 3D 맵핑과 조명 등이 결합된 공연 연출을 통해 관객들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 최첨단 콘텐츠이다.
- 최근 세계 각국의 유명 박물관들과 고적들이 AR(증강현실) 기술을 등에 업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AR기술의 핵심적인 특징은 현실의 풍경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가상의 대상이 겹치게 되어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창덕궁의 옛 현장을 재현한 것처럼 느끼며 역사적인 경험에 몰입할 수 있다. **<창덕궁 AR체험>**은 '궁궐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증강현실 체험'이다. AR기술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창덕궁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그 속에 살아 있는 역사 이야기를 색다른 방식으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조선식 달밤’ 이 궁금하시오?

- 밤이 깊어갈수록 첨단 미디어와 조명이 연출하는 빛에 더욱 화려해지는 경복궁 경회루의 <화룡지몽>이 있다면, 인근 창덕궁에는 ‘조선식 달밤’을 즐길 수 있는 **<달빛 기행 in 축전>**이 진행된다.
- 창덕궁의 야경과 밤의 운치는 ‘숨겨진 보물’이자 함부로 접할 수 있는 ‘숨은 문화유산’이다. 창덕궁은 전통건축과 자연 조경이 잘 조화된 곳으로, 창덕궁의 후원과 조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실 정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즐긴 봄밤의 운치를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빛 기행 in 축전>**이다. <달빛 기행 in 축전>이 진행되는 동안 창경궁의 또 다른 보물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도시의 화려한 밤은 사라지고 궁궐 내에 몇 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밤의 운치가 열린다.

④ 어르신에게 왕의 건강 검진과 즐거운 잔치를 챙겨드리자!

- 창덕궁 **<왕실 내의원 체험 - 허준이 되다>**을 통해 왕의 건강 검진을 받아보자. ‘내의원’이란, 조선시대 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서이다. 내의원에서 사용되었던 창덕궁 약방에서 국내 한의사와 한의대 학생들이 어의와 의녀로 분장하고 체험자들의 진맥검진 등을 시행한다. 또한 왕을 진료하던 모습을 시연하는 ‘왕의 진료’와 향낭 및 약첩 싸기, 한방차를 시음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 창경궁에서 펼쳐지는 **<양로연-가무별감>**도 나이 드신 어르신을 위한 웰빙 프로그램이다. 창경궁은 왕실의 어르신을 모시기 위한 성종의 효심에서 지어진 궁궐로 <양로연-가무별감>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부모님을 창경궁으로 초대하여 문정전 일대에서 진행하는 즐거운 연향이다. 회당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연을 접수 받아 간단한 다과와 함께 발탈, 줄타기 등의 즐거운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5월의 따사로운 햇볕에 노출된 어르신의 건강도 걱정하지 않도록 과거에 궁중의례나 연회 시 사용된 해가리개를 하나의 작품처럼 설치하여 관람객의 볕을 가려주는 용도로 문정전의 하늘을 덮을 예정이다.

⑤ 축제 속 축제. 조선 상남자들의 무예와 스포츠를 즐기다!

- 5월 4일과 5일, 오후 1시와 3시에 '첩종'이 울리면 조선의 왕을 지키던 무사들이 경복궁 홍례문 광장으로 모여들어 무예를 통해 군기와 조선왕조의 권위를 선보인다.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이하 첩종)>**은 첩종이 울리면 궁궐에 위치한 군사뿐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하여 점검을 받는 사열의식이다.
- <첩종>은 군사들이 빠르고 절도 있게 모여 무예를 보여주고 겨루기를 하는 행사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증한 재현행사이다. 이 행사는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운이 좋아야만 볼 수 있는 행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제5회 궁중문화축전에서 하루에 두 번, 이틀 동안 만날 수 있다.
- <첩종>이 진행되는 같은 날에 경희궁에선 **<어린이 씨름한마당 - 궁궐 도깨비와 씨름 한 판>**이 펼쳐진다.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씨름이 남북 공동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펼쳐지는 어린이 씨름 대회와 더불어 경희궁 숭정문 앞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한마당, 그리기 한마당, 전통놀이 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광화문 홍례문 광장에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광화문 일대에서 <파수의식>**이 진행되어 조선 군인들의 위엄과 격식을 느껴볼 수 있다.

⑥ 개혁의 왕 '고종' 이냐, 백성을 아낀 위민의 왕 '영조' 냐

- 조선 후기에 창경궁은 영조대왕의 위민정치의 산실이었고, 덕수궁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다. 그래서 두 궁궐에는 두 임금의 숨결과 삶의 흔적이 배어 있다.
- 창경궁과 덕수궁에서 펼쳐지는 **<시간여행, 그날>**은 직접 배우가 되어 창경궁의 영조와 덕수궁의 고종의 삶과 일과를 체험하며 이른바 '상황극'의 배우가 되어 보는 체험형 연극 프로그램이다.
- 덕수궁과 창경궁에서 각각 진행되는 **<시간여행, 그날-고종>과 <시간여행, 그날-영조>**는 사전신청을 통해 지원자가 참여하는 시민배우를 모집하며,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준비된 전문배우와 함께 왕의 체험을 겪으며 만들어나간다. 먼발치에서 구경과 관람으로 접하던 궁궐이 아닌, 궐 내 숨 쉬는 여러 문화와 문물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음미하며 즐기는 나만의 '왕 되기' 프로그램! 왕이 되는 것을 꿈만 꿔오던 당신이 단 하루, 한 시간 동안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⑦ 봄빛 물든 공연, 봄날의 궁중을 수놓다

- 조선 시대 궁궐은 고급 공연장이기도 했다. 그 안에서 왕들은 어떤 공연을 즐겼을까?
- 창덕궁 인정전에서 펼쳐지는 **<조선왕조 500년의 예악(禮樂)>**은 조선왕실의 음악과 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조선의 임금들이 즐겨 듣던 궁중음악은 물론, 궁중춤을 뜻하는 '정재'를 국립국악원의 연주와 무용으로 만날 수 있다. 찬란히 꽃 피웠던 과거 궁중예술을 실제 궁궐을 배경으로 감상하면서 왕실의 위엄과 함께 자연과 건축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된다.
- 덕수궁에서는 두 개의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광명문 앞에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극장이던 '협률사'를 재현하여 그 시절에 선보였던 판소리와 각종 전통가무(노래와 춤)를 만날 수 있는 **<소춘대유희>**가 펼쳐진다. '소춘대유희'란 1902년에 처음 문을 연 협률사의 창립공연 제목으로 그 뜻을 풀이하면 '웃는 봄날의 연희'라는 의미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협률사가 문을 열었을 당시 역사적 순간을 재연한다.
- 조선 시대의 덕수궁은 안팎의 새로운 문물들이 고종에 의해 유입되던 궁궐이었다. 따라서 외국 공사들이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서양풍의 건축 양식에 전통 목조 건축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정관헌에서 진행되는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는 외국 공사들이 고종황제를 알현하는 의례, 접견 후에는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는 서양식 군악대의 연주, 검무, 사자춤, 포구락 등 당시 외국 공사들을 위해 펼친 연희공연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 이외 창덕궁 후원 부용정에서 **<창덕궁 고궁음악회 - 부용지의 오후>**와 **창경궁 일원에서 <창경궁 고궁음악회 - 꽃길을 거닐다>가 진행**되어 전통음악과 함께 봄날의 여흥을 만끽할 수 있다.

⑧ 우리 아이들에게 왕의 품위와 지혜를 물려주는 시간

- 경희궁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 아기씨들 납시오!>**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는 왕자와 공주의 궁중 문화를 살펴보고 궁궐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 경복궁 영제교 옆 회랑과 근정전 회랑에서 진행되는 <어서와, 경복궁은 처음이지!>는 경복궁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복장을 종이갑주로 만들어 조선시대 호위군이 되는 체험과 함께 궁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할 수 있어 궁에서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⑨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형유산' 과 '무형유산' 이 만나는 곳, 종묘

- 종묘는 5대 고궁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중요한 전통건축물 중 하나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인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형유산이다.
- 봄밤이 깊어지면 종묘의 정전에서 **<종묘제례악 야간공연>**이 펼쳐진다. 종묘제례악은 왕과 왕비에게 지내는 제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종묘대제'에서 연주되는 가(노래)·무(무용)·악(음악)을 일컫는다. 종묘제례악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종묘제례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세계적 가치를 지닌 무형유산으로 전승되고 있다. 서울의 도심에서 조선의 역대 왕조에게 바치는 음악의 향연과 밤의 울림을 통해 전통과 권위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함께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묘대제>**가 진행된다. 전 세계에서 왕실의 제례의식이 잘 보존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문화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엄과 그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⑩ 우리가 모르고 있던 궁궐의 비밀. 그림으로 보고, 라디오로 듣는다

- 궁궐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비밀과 역사가 숨 쉬고 있다.
- 궁궐 내에 심어진 나무들은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궁궐의 역사를 지켜온 또 하나의 파수꾼이다.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 답사 IN 축전>**은 창덕궁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는 옛 그림인 '동궐도'에 묘사된 나무를 찾아 창덕궁 고목에 얽힌 궁궐의 이야기와 왕실문화를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 창덕궁 궐내각사에서 진행되는 **<도화서 체험-김홍도가 되다!>**은 조선시대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도화서의 화가가 되어 궁중화를 직접 그려보는 프로그램이다.
- 이외 경복궁 광화문 앞에 **<축전 오픈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궁중문화 관련 유명인을 초대하여, 음악과 함께 궁중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악방송과 함께 하는 이 프로그램은 '궁중 인문학'을 통해 우리가 모르고 있던 궁중의 비사와 매력에 눈을 뜨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붙임 4)

사 진 자 료

<제5회 궁중문화축전 자원활동가 '궁둥이'>

<미리보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 사전행사 - 경복궁 경회루에서 선보이는 화관무>

<미리보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 사전행사 - 경복궁 수정전에서 선보인 상고무>

<2018년 제4회 궁중문화축전 행사 현장>

<2018년 제4회 궁중문화축전 행사 현장>

<2018년 제4회 궁중문화축전 행사 현장 - 시간여행, 그날>

<2018년 제4회 궁중문화축전 행사 현장 - 경회루 야간 음악회>

<이번에 행사에서 선보이게 될 '사열의식 첩종'>

<덕수궁에서 선보이게 될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戱) 공연 모습(김덕수 사물놀이패)>

<창경궁에서 선보이게 될 제다 시연 모습>

<덕수궁에서 선보이게 될 황실군악대 공연 모습>